장작가마 보며 불멍하러 영암도기박물관으로 오세요

오는 13~15일 영암도기 소성… 불멍·소원쓰기·장작패기 체험 행사도

영암도기박물관이 주말인 13~15일 3일간 장작가마 소성과 함께 다양한 도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천년을 이어온 영암도기 문화를 계승하고, 영암군민과 관람객 등과 그 정수를 누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도기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구림도기의 전통을 품고 있고, 장작가마는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소성 방식이다.

이번 장작가마 소성에서는 약 200여 점의 생활도기와 장식도기 오브제가 완성된다.

특히, 고온으로 구워내는 시유도기의 새로운 색감과 질감 시도도 병행돼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작가마는 이틀간 예열을 거쳐 3일째 본불 소성으로 이어지고, 불꽃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도기 색감은 장작가마 소성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알려져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이런 특성을 살려 영암도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작가마 소성 관람객에게는 불멍, 소원 쓰기, 장작 패기 체험 프로그램이 현장 신청과 함께 무료로 제공된다.

장작가마를 바라보며 불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고 시름을 잊고, 장작에 바람을 적어 소원을 비는 체험 등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불과 흙이 만나 전통을 잇는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영암도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3회에 걸쳐 장작가마 소성 등으로 영암 시유도기 유약 개발, 도기 관광상품 제작에 나선다.

다음 장작가마 소성은 추석 연휴와 월출산국화축제, 한옥비엔날레와 연계 추진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서 인생 음악극 '엄마의 인생' 선보인다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서 무료 공연, 세대 잇는 감동의 무대

인생 음악극 '엄마의 인생'이 6월 14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사)누림이 주최하고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전라남도와 전남도문화재단, 담양군이 후원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마의 인생'은 담양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음악극으로, 한 여성의 평범하지만, 눈부신 인생 여정을 따뜻하게 그려낸다.

유년 시절의 순수함부터 결혼과 육아, 삶의 고단함과 상실, 그리고 손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희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담아내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관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극에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관객들이 무대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는 '찔레꽃', '나비소녀', '섬집아기' 등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곡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공연 관계자는 "'엄마의 인생'은 우리 주변 모든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s://forms.gle/aeiYheh8mHbHAfNX8)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담양군문화재단 누리집www.dy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

순천시 향동, 마을 설화 바탕으로 한 웹툰 '향동 로맨스' 연재 시작

연자루 설화 '손억부사와 호호기생의 사랑 이야기', 네이버웹툰 총 10회 연재

순천시 향동은 최근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을 배경으로 제작된 웹툰 시즌2 '향동 로맨스'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웹툰 '향동 로맨스'는 마을 연자루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손억부사와 호호기생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춘 로맨스다.

고즈넉한 향동의 분위기와 '기다림'이라는 정서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 모두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연재될 예정이며, 둘째·넷째 주 금요일마다 네이버웹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선보인 웹툰 '안녕, 향동'은 아홉 살 소녀 하늘이와 700살 노묘 천냥이가 향동의 역사·문화·인물 등 마을의 보석들을 찾아다니며 그 가치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다뤄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향동 관계자는 "이번 웹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순천시 향동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야기 속에 담긴 정서와 아름다움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 향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향동은 웹툰 제작 외에도 벽화골목 조성, 캐릭터 조형물 설치, 캐릭터 굿즈 개발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역자원을 콘텐츠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강좌' 수강생 모집

'한강 소설'도 읽고, '지역 문화유산 탐방'도 하는 프로그램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책 향기를 만지자 - 읽는 삶, 나누는 이야기'를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흥 맞춤형 인문 강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다.

강좌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문학작품과 송수권 시인을 비롯한 고흥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작품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학이란 콘텐츠로 고흥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 신청은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인문네트워크(https://inmun360.culture.go.kr)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고흥군 대표 누리집 및 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이번 강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 12일 개최

5·18 공동체 정신 계승, 만장기 행진·살풀이 공연 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12일 오전 9시~오후 4시 지원2동 주남마을에서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성)와 지원2동 주민자치회(회장 조장근), 주남마을 주민들이 개최하고 광주광역시와 동구 등이 후원하며 민관이 협력해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행사는 ▲만장기 행진 ▲ 시 낭송 ▲ 풍선 날리기 ▲살풀이(우리춤) 공연 ▲ 민주·인권·평화 손도장 찍기, 지원2동 주민자치회 주관 ▲헌법 속 인권 찾기 퀴즈 ▲ 마을 스탬프 투어 ▲평화의 꽃 피움 등 주남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철성 위원장은 "주민들이 주도한 행사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을 내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며 숭고한 뜻을 기리고 스스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제'는 1980년 5월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5·18민중항쟁 사적지 제14호)'을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행사다. 고답적인 5·18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가 함께하는 만들고자 주남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억이 니은이'는 과거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인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역과 니은을 의미한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